

## 문화도시의 충족조건: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김은경\* · 변병설\*\*

**요약:**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으로 '문화도시'가 급부상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 역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천 남구는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되면서, 타 지자체의 본이 되고 있다.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 문화적인 도시경관 및 생활공간 조성,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화도시는 문화친화적인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환경정책의 방향성을 확립하고, 관련 법 및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 시, 문화계획을 고려해 문화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 파트너십을 제고하고 인간이 중심인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어:** 문화도시, 문화환경정책, 도시의 정체성, 도시의 문화친화성, 도시의 공간미학성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데 이견이 없을 만큼, 최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 관심은 단순히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기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적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문화적 욕구 충족이 아닌, 국가·지방정부의 정책과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각 지방정부에서는 도시브랜드 상승과 지역의 차기 전략산업으로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를 통해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이탈리아 볼로냐와 일본 가

나자와 등은 작지만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시발전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 오렌지카운티도 1990년대 말부터 음악·미술·공연을 중심으로 "절충적 오렌지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창조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sup>1)</sup>. 중유럽 문화지존의 축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음악도시 뮌헨은 뒷골목의 '마술피리' 클래식 레코드 샵, 음악도시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식당 등으로 즐비한 거리와, 매년 7월이면 13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다<sup>2)</sup>. 국내 도시 역시, 문화패러다임 속에서 다양한 전략으로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6년을 문화도시 서울로 가는 원년이자, "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5년 마다 문화예술 중장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박사과정

\*\*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경기도 역시 「문화비전 2006」을 통해 문화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인천시도 문화의 불모지라는 인상에서 벗어나 문화적 생명력이 왕성한 곳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문화인프라 건립 및 운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sup>3)</sup>.

문화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각 지방정부의 노력에서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도시는 문화환경적으로 열악하다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추진된 도시화작업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도시기초생활시설의 절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적(量的)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해왔다. 도시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토지, 주택, 교통, 환경문제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산을 깎고 강을 메워 대규모로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상하수도를 개설하는 등, 도시의 물적(物的) 기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역량 확충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덕분에 도시기초생활시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전략은 도시를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 보다는 도시의 몸집을 부풀리는 것에만 치중해 왔다. 최근 문화를 도시발전에 접목시키는 시도도 대개 문화적 이벤트를 끌고 나오거나, 쇠퇴하는 도시경제 살리기의 수단으로써 문화를 취급하는 수준이다. 도시가 갖고 있어야 하는 문화적 가치, 공간의 미학, 시민들의 공동체성 등이 무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또한 도시의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문화환경을 통해 일상의 문화활동을 증진시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문화와 연계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문화환경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문화도시란 단지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문화를 기반으로 도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발상과 그것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문화환경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즉, 문화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성공한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환경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받는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문화환경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그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문헌연구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문화도시와 관련한 저서 및 논문을 통해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을 수용하면서 “문화환경”, 그리고 “문화환경정책” 관점에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충족조건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 지자체의 문화환경정책은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4 문화환경가꾸기」(2005)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문화환경가꾸기」사업은 일상생활 주변의 환경에서 문화의 창달과 향수 및 체험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는 지속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문화적 저력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sup>4)</sup>.

마지막으로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 정책자료는 남구 및 구내 문화관련 기관의 협조로 이루어졌다<sup>5)</sup>.

## 2. 도시와 문화환경

### 1) 도시의 문화환경

### (1) 도시와 문화

도시란, 무엇인가. 도시에 함의된 다양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도시는 사회공동체이다. 도시는 하나의 생활공간일 뿐 아니라, 도시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중심적인 가치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공동체이다. 둘째, 도시는 동적공간이다.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공간이며 인간의 삶을 담은 그릇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유지시켜 주는 터전이다. 따라서 도시는 정적인 개념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동적인 공간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는 문명이다. 고대문명의 발생지에는 전문가중심의 도시가 있었고, 그들이 도시를 운영하면서 도시의 문명을 만들어갔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곧 ‘문화’(culture)인 것이다. 결국 도시의 개념 속에 자연스레 문화의 의미가 스며들어있다. 도시보다 개념정의가 더 난해한 것이 문화<sup>6)</sup>인데, 문화개념은 ‘도시’라는 수식어가 한계 지어주고 있다. 문화는 ‘여유’이다. 여유란 일차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말하며,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까지 포함한다. 또한 문화는 ‘삶의 질’의 척도이다. 문화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키워드이며,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도시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성’에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우선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을 부각시킨다.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전략은 국경을 넘어서 도시와 같은 지역 단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둘째, 도시가 갖고 있는 ‘정체성’(identity)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sup>7)</sup>. 21세기형 도시는 그 도시만의 매력을 발산해야 한다.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문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도시의 ‘상’(像)이다.

### (2) 문화도시의 개념

‘문화도시’(Cultural City)<sup>8)</sup>란 어떤 도시인가? 문화

와 도시의 합성어인 문화도시 역시, 그 개념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라는 개념은 그리스의 장관이자 영화배우인 멜리나 메리쿠리(Melina Mericuri)가 1985년 처음으로 사용했다. 유럽도시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기로 주로 공업도시의 재생프로젝트로 활용하였다. 그 때의 개념은 “문화적인 도시환경 창출”로 주로 문화적인 도시기반 환경의 정비사업이 주요정책이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의 보존, 도시환경의 미관화·미학화, 예술활동의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문화적 재생 사업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였다<sup>9)</sup>. 국내에도 문화도시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다. 황동열(2000)은 “문화도시란 풍부한 문화자원과 문화시설 등 문화적 기반이 구비되어 있으며, 문화지구, 문화의 거리, 도시문화벨트가 1개 이상 존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갖춰진 도시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김효정(2004)은 “지역의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환경조성을 통한 창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라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매력(charming), 느낌(feeling), 즐김(enjoying)이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라도삼(2006)은 “문화도시는 그 문화를 미학적으로 보전·육성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도시”라고 정의한다. 무엇보다도 문화도시는 단순히 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이나 예술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벗어나 그 관심이 ‘환경’, ‘도시’의 관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갖춰가는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도시는 문화친화성을 담보로 한다. 즉, 풍부한 문화예술 컨텐츠가 풍성해야 한다. 또한 문화친화성은 역사와 전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도시는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온 내용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도시란 과거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재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문화도시의 공간미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시의 미학은 도시의 이미지이다. 동시에 시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인간을 배려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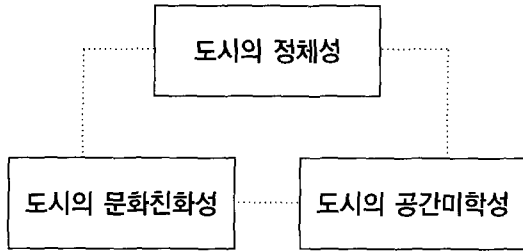


그림 1. 문화도시의 충족조건

얇은 도로설계, 매력 없고 지루한 도로구조, 똑같은 구조의 고층빌딩 등은 도시의 미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도시의 모습이다<sup>10)</sup>. 따라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도시는 인간주의적인 설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 때 반드시 문화적 시각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문화도시의 개념과 충족조건에 기반하여 문화도시란, 문화도시를 문화적 시각에서 도시정책을 접근하려는 개념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3) 문화환경의 개념과 대상

“문화환경”이란 문화와 환경이라는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명사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볼 수 있다. “문화를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the culture)과 “문화적 환경”(cultural environment)이다<sup>11)</sup>. 문화를 위한 환경이란 문화시설을, 문화적 환경이란 일상생활환경을 일컫는다. 문화시설은 명확히 문화를 위한 환경으로 상응되지만, 문화지구, 문화산업단지, 문화마을, 문화도시, 문화벨트는 일상정부 환경을 바탕으로 문화시설에 배치되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환경의 범주와 대상을 <그림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sup>13)</sup>.

문화환경 개념을 활용하여, 문화정책이 아니라, ‘문화환경’ 정책이라고 규정한 것은, 막연한 문화개념에서 벗어나 ‘공간’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이는 과거의 문화공간(culture space)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공간(cultural space)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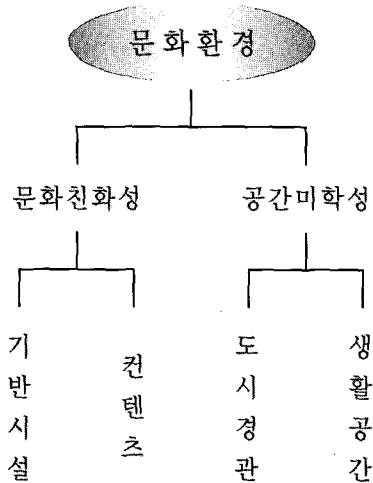


그림 2. 문화환경의 범주와 대상

2) 도시의 문화환경정책 유형

문화환경정책 하에 수행되는 사업은 문화친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 사업 및 콘텐츠사업과, 도시의 공간미학을 고려한 도시계획사업(도시경관 및 생활공간조성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반시설사업 및 콘텐츠 사업

기반시설사업은 주로 도시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전용시설로서, 상시적으로 활동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기반시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콘텐츠(content)라 할 수 있다. 콘텐츠란 기반시설이라는 ‘하드’(hard) 속에 채워지는 ‘소프트’(soft)한 문화요소인 것이다. 문화적 ‘요소’에는 전통문화, 예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되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행사, 축제들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기획력은 문화적 요소에 새로운 의미를 불러 넣는 원동력이 된다.

기반시설은 문화예술활동과 향수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환경으로, 문화예술시설, 복합단지, 문화예술행사장 등의 전용시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연장, 음악당, 미술관 등은 도시의 얼굴이자, 도시민들에게 문화체험과 예술감상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컨

표 1. 문화환경사업: 기반시설 및 콘텐츠 대상

	구분	대상
기반시설 사업	· 주요문화(예술)시설 및 복합단지 · 문화예술활동을 전용시설, 단지 · 상설적 문화예술활동 환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기념관, 야외음악당, 전시관, 화랑, 조각공원 <sup>4)</sup> 등
콘텐츠 사업	· 문화예술 전용시설 프로그램 · 축제, 이벤트, 컨벤션 <sup>5)</sup> 등	박람회, 전시회, 회의, 문화예술제, 스포츠대회

텐츠의 대상이 되는 축제, 이벤트는 도시민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도시의 경제기반을 탄탄하게 해 주고 있다<sup>6)</sup>. 특히, 축제는 도시라는 지역의 차별화된 공간과 시간을 표현해 주는 문화전략이다. 축제는 하나의 도시가 다른 도시와 왜, 또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2) 도시경관 및 생활공간 조성사업

도시경관 조성은 전반적인 생활문화환경을 문화적으로 잘 가꾸어가는 도시계획적 사업이다. 경관<sup>7)</sup>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는, 도시의 개성 및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살려주는데 있다. 도시의 광장에서 바라본 거리의 풍경, 건축물 등은 곧 그 도시와 도시민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인 자연과 역사 등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도시민의 다양한 활동과 생활을 반영한 색채, 향기, 친밀감 등이 느껴지는 경관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생활공간 조성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문화적으로 세련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를테면, 다양한 지역문화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에서부터 휴게소, 역과 같은 공공시설과 쇼핑몰 등의

소비공간을 보다 문화적으로 기획하는 것이다.

도시경관 조성의사업에는 문화(예술) 거리조성사업과 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있다<sup>8)</sup>. 이 뿐 아니라, 각종 공원과 광장을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각각의 사업에는 공공건축물 재정비, 보행경관의 정비, 교량경관 정비, 옥내·외 간판과 광고물 정비와 같은 세부작업도 포함한다. 생활공간 조성은 문화적으로 세련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뉘볼 수 있다. 일상생활환경 조성(도서시설, 문화복지시설), 공공시설 조성, 소비문화공간 조성이다. 특히, 문화복지시설의 문화의 집과 복지회관을 설립은 각 지자체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sup>9)</sup>.

3. 도시의 문화환경정책 사례

1) 국내도시의 문화환경정책<sup>20)</sup>

문화의 가치가 새삼 강조되면서, 대부분의 지자체

표 2. 문화환경사업: 도시경관 및 생활공간 조성 대상

	구분	대상
도시경관 조성	· 문화적으로 조성된 일반생활환경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지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광장, 시민광장 등
생활공간 조성	· 문화적으로 세련된 생활공간 - 문화복지시설 - 공공시설 - 소비문화공간	도서관,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휴게소, 역, 쇼핑몰 등

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의 매력을 높이면서, 지역활성화를 꾀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다. 지역마다 창의적인 묘안을 짜내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화환경 유형화에 따른 각각의 문화환경정책 사례를(국내 지자체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친화성 정책

국내 도시의 기반시설사업은 박물관과 전시관 건립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도시의 역사적인 테마를 부각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천<sup>21)</sup>의 선사유적박물관과 용기박물관, 강진의 청자박물관, 청주의 고인쇄박물관, 태백의 석탄박물관, 그리고 정읍의 동학농림혁명기념관 등을 들 수 있다. 청주시는 세계기록문화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인쇄 전문 박물관<sup>22)</sup>을 건립하였고, 태백시는 석탄박물관은 한 때 국내 석탄소비량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영광을 누리다가 1989년 석탄합리화 시책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태백의 애환을 재현한 공간인 석탄박물관을 세웠다<sup>23)</sup>.

컨텐츠사업은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를 축제로 풀어내는 개발방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축제는 행사의 기획부터 공간 및 시간구성, 프로그램 개발과 연출, 그리고 사후관리 등 축제 전체 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과 식견이 요구된다. 성공

적인 도시축제로는 전주의 한지축제, 강진의 청자문화제, 안산의 단원미술제, 청주의 직지축제, 하동의 야생차문화축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강진의 청자문화제<sup>24)</sup>는 연속 4회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하동의 야생차문화축제는 야생차에 대한 지역민의 인지도와 자긍심이 대단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2) 공간미학적 정책

도시의 공간미학적성을 위한 지자체의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문화적으로 세련된 거리조성, 역사적인 마을조성, 그리고 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리조성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통영시의「윤이상 거리」를 들 수 있다. 윤이상 생가 중심으로 좁은 길을 들어서면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고풍스러우면서 옛 거리의 정취가 가득 담긴 낡은 건물들이 남아 있다. 비록 가꾸어져 있지는 않지만 골목길 자체가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오래된 건물과 골목을 잘 연계·활용하여 윤이상 거리를 통영의 예술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음악거리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의「국경없는 마을」은 외국인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시의 특색이자 장점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과 더불어 안산시의 국제도시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

표 3. 국내도시의 문화환경정책: 기반시설 및 컨텐츠사업

구분	기반시설	컨텐츠사업
강진	청자박물관	청자문화제
부천	교육박물관, 유럽자기박물관, 만화박물관, 활박물관, 공업사박물관, 선사유적박물관, 용기박물관, 향토역사관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대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복사골예술제
안산	성호기념관, 단원전시관	국제거리극축제, 단원미술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영화제, 한지축제
정읍	동학농림혁명기념관	벚꽃축제, 내장산겨울축제
청주	고인쇄박물관, 청주국립박물관, 청주예술의 전당	직지축제
태백	화석박물관, 석탄박물관	눈축제
통영	청마기념관, 국제조각공원, 세병관 및 통영향토역사관	페스티벌 하우스, 한산대첩축제
하동		매암차문화박물관 야생차문화축제

준 좋은 사례이다<sup>25)</sup>. 태백시의「철암탄광촌」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주민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만들어간 본보기이다. 새롭고 건강한 지역개발의 대안을 찾기 위해 예코뮤지엄을 태백시의 가장 낙후된 탄광마을 철암지역을 회생시켰다<sup>26)</sup>. 부천은「영상문화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 계획안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아트 하이브(DAH)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고, 최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국가적인 주목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생활공간조성사업은 다양한 문화센터와 문화복지회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 대세이다. 그 중 전주의 전통문화센터와 청주의 한국공예관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좋은 사례이다. 전주전통문화센터는 전주시의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고, 전통기예를 계승할 수 있는 공간이다<sup>27)</sup>.

(3) 국내 지자체 문화환경정책 평가

국내 각 지자체의 문화환경정책을 검토할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 및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문화환경정책은 여전히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더 치중하고 있다. 전시관, 박물관 등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무엇보다도 문화적이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섬세한 고려가 아직은 미흡하다.

둘째, 주체의 문제이다. 태백시의 철암탄광촌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 문화환경정책 및 사업은 관 주도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문화환경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며, 이에 정책적 지원을 하는 식의 사업진행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충분한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통문화를 살리는 문화환경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단순히 전통을 그대로 보전하는데 머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도시 전체의 상을 그린 후, 이 속에서 현대의 도시와 전통이 조화로우 수 있는 거시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마을 단위가 아닌 ‘문화지구’ 조성단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해외도시의 문화환경정책

(1) 영국 글래스고우(Glasgow)

글래스고우는 문화적 접근으로 도시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이다. 1980년대 이전에는 글래스고우시 하면, “폭력도시”, “쇠퇴도시”, “술에 찌든 도시”라는 이미지로 연결될 정도였다. 이러한 글래스고우가 문화도시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문화환경정책

표 4. 국내도시의 문화환경정책: 도시경관 및 생활공간 조성사업

구분	도시경관조성	생활공간조성
부천	영상문화단지(디지털아트하우스, DAH 산업단지)	상동근린공원 야인시대 세트장, 부천만화정보센터
안산	국경없는 마을	안산문화예술회관
전주	한옥마을,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전통문화센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정읍	김동수 가옥	국악원, 예술문화회관, 정읍우도농악 전수회관
청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및 청주시첨단산업단지	한국공예관
태백	철암탄광촌	철암어린도서관, 태백문화의집
통영	윤이상거리, 통영문화마당과 청마거리	통영시민문화회관
하동	최참판댁	화개장터, 차문화센터, 하동문화예술복지회관

덕분이다. 그 전략은 다음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도시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역개발 중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도시를 정비했는데, 우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부터 착수하였다. 갤러리, 새로운 실험극장, 콘서트홀, 스튜디오 등을 건설한 것이다.

둘째, 도시의 산업과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문화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독창적인 축제를 개최하였다. 스코트랜드 발레, 비켈 컬렉션, 시민극장 등이 그것이다.

셋째, 글래스고우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문화컨텐츠 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를 통해 페스티벌 조직을 설립하고, 전시, 컨벤션, 문화이벤트, 출판 등에 관한 프로그램 등도 조성하였다.

무엇보다도 글래스고우시가 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여러 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로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화환경정책 수립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로 표현예술의 영역 뿐 아니라, 문화일반 영역을 포괄하는 도시 전체의 문화적 기획이 가능하였다<sup>28)</sup>.

## (2) 프랑스 몽펠리아(Montpellier)

프랑스의 몽펠리아는 유일한 전통산업인 포도 관련 상품으로 부유한 경제를 영위하였으나, 와인의 과잉생산과 미국상품 수입으로 인해 위기를 겪게 되었다. 시 당국은 변화된 환경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을 강구하였고, 그것이 바로 문화환경정책이었다. 문화진흥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중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대응하고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했다. 시의 문화환경정책은 공연예술을 통한 활성화, 문화환경정책 결정과정의 민주화, 그리고 문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시는 페스티벌이나 이벤트를 통해 공연예술을 부흥시키고, 문화환경정책 결정에 관료 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예술가의 참여를 유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변화시켰다. 몽펠리아의 문화환경정책의 핵심은 문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전략이다. 지역 내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으로서 스포츠 시설이나 문화적 삶, 생활문화의 질과 같은 도시의 매력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문화환경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소위 “기업지배사회(technopolitan)”라는 전략을 세우고, 기업이 문화영역에서 파트너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그것을 위해 세금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몽펠리아가 문화적 접근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룬 배경에는 각계 전문가와 거장들의 유입, 지역의 교수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시 개성화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적인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된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sup>29)</sup>.



그림 3. 글래스고우의 도시풍경



### 3) 스페인 빌바오(Bilbao)

빌바오는 1980년대 이후 지역산업이 급속히 쇠퇴하자,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시는 쇠락하는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유럽의 주요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철강제철산업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도시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sup>30)</sup>. 빌바오의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도시의 이미지를 재형성하는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목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활성화와 주민 삶의 향상에 있었다. 경제 활성화 전략은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고용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은 지역과 시민의 삶이 밀착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한 문화정책의 내용으로는 △역사적인 건물의 외관 복원과 복구, 쇼핑가의 보행자전용 도로화, △시공원의 재건축, △공공경관의 조성, △해안지구의 재정비, △무역박람회 활성화, △공원의 증설 등 주로 건축과 관련된 계획을 달성되었다. 빌바오의 문화환경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겐하임미술관” 유치이다.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구겐하임미술관을 개관했으며, 이는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미술관 주변 네리비온 강가에 대규모 문화단지 조성 및 도시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등 도시기능 전반에 걸쳐 재생활효과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31)</sup>.

빌바오의 문화환경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가 곧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굳은 신념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을 통합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 때문이었다<sup>32)</sup>.

#### (4) 해외문화도시가 주는 시사점

해외 문화도시가 갖는 문화환경정책의 특징은, 우리에게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점은 문화환경정책 수립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점이다. 문화를 단순

히 상품화하지 않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핵심전략으로 인식했다.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로, 인간이 중심이 도시로 만들어가는 키워드를 ‘문화’로 본 것이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단순히 도시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역사문화경관 보전 등과 같은 일차적원 수준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도시, 감동을 주는 도시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문화환경정책을 수립했다. 글래스고우의 경우도 그 도시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 쇠퇴하고 있는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환경 조성에 있어 문화예술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셋째, 그 자체가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계획이었다는 점이다. 즉, 한가로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점은 우리의 문화환경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빌바오의 경우도, 도시 건물을 복원하고 복구하며, 역사적인 건물의 외관 복원과 복구, 쇼핑가의 보행자전용 도로화 하고, 시민들의 공원을 증설하고 재건축하는 등 시민의 생활공간을 문화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도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문화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전략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몽펠리아가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시 개성화 작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에게 다가 가는 열린 문화행정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힘이라 할 수 있다.

## 4. 도시의 문화환경정책: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을 중심으로

### 1) 문화환경정책 현황

인천 남구가 표방하는 도시상은 한마디로 “문화도

시”이다. 남구는 미래지향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민 참여 위주의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남구의 유형별 문화환경정책은 아래 <표 5>와 같다.

(1) 문화친화성 정책

남구는 문화친화성을 담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다. 즉, 문화공급의 원활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구의 문화를 견인하는 시설로, 남구문화원과 학산문화원을 꼽을 수 있다. 학산문화원<sup>33)</sup>은 문화원 이름을 딴 학산소극장을 건립<sup>34)</sup>,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연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으로서 전시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식박물관이다. 이밖에도 송암미술관, 국제성서박물관, 매소홀전시관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남구는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하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콘텐츠의 내용은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sup>35)</sup>와 미추홀문화축제<sup>36)</sup>를 열어 도시를 축제분위기로 만들어내고 있다. 첨단문화도시를 겨냥한 대한민국로봇제전은 21세기 최고의 코드 로봇을 주제로 전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과학축제로 남구축제의 자량이 되고 있다<sup>37)</sup>. 특히,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표 5. 인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 현황

문화환경정책유형	내 용
기반시설	남구문화원, 학산문화원, 학산소극단, 어린이박물관, 송암미술관, 국제성서박물관, 매소홀전시관,
콘텐츠	주안미디어문화축제, 미추홀문화축제, 세계어린이민속춤축제, 대한민국로봇제전, 학산젊은연극제, 풀뿌리미술학교, 남구합창단,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 청소년합창단
도시경관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담장허물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생활공간	청소년미디어센터, 시민교육연극센터,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미술학교와 주민이 만드는 작은 음악회<sup>38)</sup>는 콘텐츠의 중심이 ‘도시민’에게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구는 보다 많은 소극장 설립을 위해 “소극장 확대 조성”사업에 착수하였다. 도시민의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소극장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도시 기반설립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소극장 확대 건립과 더불어, 소극장<sup>39)</sup> 지원책 확대 강화 및 공연예술문화홍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2) 공간미학적 정책

남구의 도시경관사업으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만



그림 4.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그림 5. 미추홀문화축제

들기와 담장허물기 사업을 들 수 있다.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사업은 쉼터, 녹지대, 가로수 등 가로변 녹지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녹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옥외광고물 정비,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도시경관 사업으로는 “담장허물기”를 들 수가 있는데, 이는 구 내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남구는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 다양한 컨셉의 공원만들기에도 주력하고 있다<sup>40)</sup>. 특히,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이 주목할 만하다. 공원을 확대지정하고, 이용이 부적절한 곳은 폐지 및 재배치하여 10분 안에 이용가능한 실질적인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공간 조성은 문화복지시설(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시민교육연구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민교육연구센터<sup>41)</sup>는 ‘시연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된 복합문화공간이며, 청소년미디어센터(CAMP)<sup>42)</sup>는 인천 최초의 청소년 미디어 체험장으로 구를 대표하는 문화적 생활공간이다. 또한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 건립사업<sup>43)</sup>도 계획 중에 있다.

남구는 추후 생활공간 확충하기 위해 주안영상미디어센터<sup>44)</sup>와 컬처힐(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

연구단계에 있다. 특히, “컬처힐”이라는 집약적인 복합문화시설건립은 도시민들의 문화, 복지, 체육, 녹지 공간 등이 제공되어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중심의 문화거리 조성사업도 주목할 만 하다. 대학 주변의 무질서한 가로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보행위주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 도시 환경 및 대학가 주변지역의 교육·문화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sup>45)</sup>.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전설류지중화 및 간판정비 사업을 기반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궁극적으로 대학캠퍼스 타운 조성을 위한 보행자 위주의 도로개선 및 문화시설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문화환경정책의 평가

앞에서 살펴본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은 문화도시로서의 시설, 기반, 그리고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타 기초단체와 비교에서도 적극적인 문화환경정책을 통해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고 평가할 만 하다. 하지만 21세기가 지향하는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 (1) 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은 ‘인력’에 있다. 즉, 문화환경정책의 성공여부를 이를 계획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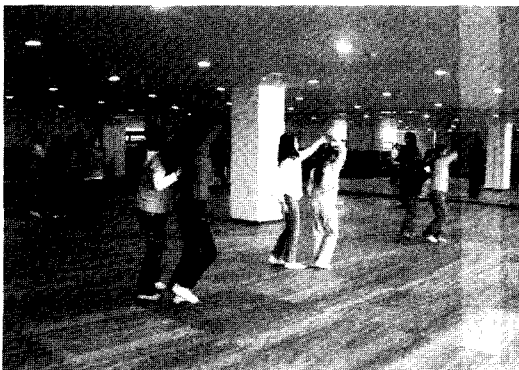


그림 6. 청소년미디어센터(CAMP)



그림 7. 시민교육연구센터(시연센)

수립해서 집행하는 사람의 몫인 것이다. 인천 남구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전문가를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문화환경정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문화회관 관장직은 퇴직인 임박한 공무원 아니면 신참 승진자들이 임시로 거쳐가는 자리거나, 문화적인 열정과 관계없이 행정편의상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다 '문화도시'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전문가에 의해 문화환경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 내의 아마추어 문화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란 그곳에 아마추어 문화활동의 터전이 확대되어서 프로와의 접점이 두터운 곳, 그래서 주민의 일상이 문화화되어 나가는 그런 도시이어야 할 것이다.

## (2) 도시경관사업의 주민참여 강화

문화환경정책의 중심에는 '도시민'이 있어야 한다. 남구의 문화친화적인 정책과 사업은 그 포커스가 정주하고 있는 도시민에 맞추어져 있는 반면, 도시경관사업(특히, 담장 허물기 사업)의 경우, 주민의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와 관공서 주도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구 광역시의 담장허물기 사업이 바로 범시민운동의 사례이다<sup>46)</sup>.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담장을 허물어 녹지 공간과 열린 공간 확보를 넘어, 공간에 공동체성을 부여하고 도시의 사회공동체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선행되어야 한다.

## (3) 개방적인 문화환경정책 강화

남구는 위치, 인구 등의 면에서 볼 때 인천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도시 인천의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개방적인 문화환경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세계인이 함께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sup>47)</sup>.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세계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구가 가진 역사성과 지역성

을 강조한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명소 만들기, 또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4) 조화와 타협

도시 공간에서 문화는 분명 돈이 되고, 표가 되는 화두로 떠올랐다. 그만큼 갈등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문화를 둘러싼, 지자체, 전문가, 활동가, 그리고 시민 사이의 인식격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남구 의회도 구에서 세우려던 미디어센터 건립안을 올해 초 "복지시설 투자가 더 중요하다"며 정부와 시에서 따온 예산까지 부결시켰다<sup>48)</sup>.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와 타협으로 문화환경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문화를 같은 눈높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와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가능하리라 본다.

## 5. 문화도시를 위한 제언

인천 남구의 동사무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극 공연이 펼쳐지는 곳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sup>49)</sup>. 그동안 추진된 남구의 문화환경정책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구민에게 문화를 통해 즐겁게 놀며 살아가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도시는 문화친화적인 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문화환경이 풍요로운 도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 상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결론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문화환경정책의 방향성 확립이다. 지자체의 문화환경정책은 타 정책의 상위에 위치하는, 개념상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이념의 성격을 가져야 한

다. 즉 문화환경정책을 정점으로 하여 다른 정책이 문화환경 정책 하에서 종합되는, 즉 정책 전체가 문화정책에 수렴되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 문화환경정책이 이념상 다른 정책의 상위에 위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 전체에 문화의 옷을 입힌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화도시는 해당부서(이러테면 문화관광과)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영역이 종합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가능한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련 역할을 규정하고는 있다<sup>50)</sup>. 이는 자치단체의 문화예술부문 사무범위를 명문화한 기본 규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하다. 하지만 지방분권화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실질화 되어 있지 못한 채, 산재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문화관련 조항을 만들고, 이를 정책실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을 포함한 “문화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공원, 도시공간설계, 도시조명, 도시광장 등의 도시정책과정에서 문화부서 인사가 참여해 문화적인 컨셉을 제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도시공간의 문화성을 담보하고, 문화적인 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문화기반시설 뿐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거리환경, 건축물, 조경, 디자인, 색상, 스카이라인 등 문화예술 경관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여 지역구역 내의 종류, 규모, 위치, 모양, 형태, 용도, 색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문화경관을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여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문화도시로 가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문화도시는 그 도시민들에 의해 창조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주

- 1) 김효정 외, 2004,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 ii.
- 2) 박종호, 2005, 유럽음악축제 순례기, 한길아트, pp.123~126.
- 3) 서울시는 2006년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문화도시 서울의 얼굴이 되는 랜드마크로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국악전용공연장 건립계획을 세웠다. 경기도는 경기정신문화, 역사문화유적지,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인천시도 최근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시와 함께 다양한 문화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고].
- 4) 「문화환경 바꾸기」는 기존 문화환경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및 활성화 작업과 일상 환경의 문화적 활용 및 적절한 문화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생활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었다. [문화환경가꾸기 홈페이지: <http://culture.kctpi.re.kr>]
- 5) 관련 정책자료를 협조해 준 기관은 인천 남구청, 학산문화원 등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 6) 테일러(Edward Tylor)는 “문화란 지식, 믿음, 도덕, 법, 관습을 포함하여 사회성원으로서의 사람이 습득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한다. Edward B. Tylor,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 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J. Murray, 1971, p.1.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의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7) 도시의 정체성과 관련해 이무용은 우리의 도시들이 매력 없고 비인간적인 얼굴을 보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정체성의 상실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근대적 도시계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얼굴을 찾아 도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시정체성 연구가 도시경관 연구의 핵심과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 고 피력하였다.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p.90.
- 8) 문화도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며, 포괄적으로 조망된 것은 참여정부에 이르러서이다. 참여정부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도시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사업은 문화중심도시 건립 사업이다. 대통령 공약으로 출발한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립 사업에 이어 경주역사문화중심도시,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건립사업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역문화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문화관광부 내에 “지역문화과”를 신설하였고, 도시의 환경과 공간문화 조성을 위해 2005년 “공간문화과”를 추가로 신설하였다. 라도삼,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2006.01, p.15.
  - 9) 라도삼, 2006, p.12
  - 10) 도시의 경관이 건조한 것은 단지 도시계획과 같은 물리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곧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Mark Goodwin, “The City as Commodity: The Contested Space of Urban Development,” *Selling Places*, Pergamon Press, p.149.
  - 11) 법규·정책상에서 문화환경은 “문화를 위한 환경”에서 좁혀진 개념으로 문화시설, 문화지구, 문화산업단지 등의 문화적 특성이 뚜렷한 환경에 한정된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환경 바꾸기 2003년 문화진단메뉴얼」, 2003, p.4
  - 12) 이러한 구분의 모호성을 고려한다면, 문화환경은 “문화적으로 세련된 일반생활환경”과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 일반생활환경”으로 구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환경 진단지표 개발」, 2003, 제2장.
  - 13) 문화환경 범주 역시, 문화도시의 조건인 문화친화성과 공간미학성을 충족시키는 원칙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 14) 공연장에는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이 있다. 종합공연장은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은 시·군·구 문화예술회관(300석 이상 ~ 1000석 이상)이며, 300석 미만의 소공연장을 말한다. 야외음악당은 연주, 연극, 무영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 과 공연장이다. 조각공원은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이다. (문화관광부 문화기반시

설 분류표).

- 15) 컨벤션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상품과 지식 및 정보 등을 압축하여 교환·교섭·교감·교류하기 위한 집회’를 말한다. 보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인간·물자·정보 등의 복합적, 종합적인 직접 교류의 장(場)’이 컨벤션인 것이다. 公務職員研修協會, 『Event & Convention』, 東京: 公務職員研修協會, 1989, p.155.
- 16) 최근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주력하고 있는 컨벤츠 사업은 ‘축제’ 적인 요소보다는 ‘이벤트’ 적인 요소가 더 강하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을 토대로 한 축제라든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축제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17) 경관이란 지역의 거리, 공원, 광장, 주택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말한다. 강형기, 『향부문: 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 2001, p.203. 따라서 도시의 경관이란 도시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18) 정부 정책에 의해 문화의 거리 혹은 예술의 거리로 명명된다. 문화활동과 예술적 행위들이 있는 거리, 도시민에게 친숙하며, 각종 이벤트와 축제가 벌어지는 명소화 된 거리이다. 또한 문화지구의 경우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문화지구로 규정된 지역이다. 문화환경가꾸기, 2005, p.9.
- 19)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이 생활권역 안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기타 각종의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문화환경가꾸기, 2005, p.9.
- 20) 지자체 문화환경정책 사례는 2004년 「2004 문화환경가꾸기」(2005)에 국한시켰으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컨벤츠”부분은 문

- 화관광부의「2005년 문화관광축제평가보고서」에 기초해 작성하였다.
- 21) 부천은 기초단체 중 문화친화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문화도시' 모토에 맞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부천판타스틱영화제,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부천만화정보센터, 복사골예술제를 위시한 5대 문화사업을 통해 활발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 22) 고인쇄박물관은 고려 우왕 3년인 1377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금속 활자본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이 인쇄된 청주 흥덕사지에 세워진 고인쇄 전문 박물관이다.
  - 23) 태백의 석탄박물관은 동양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의 "유바리 박물관"에 비해 2배 이상 연건평 3,526평의 규모로 지하갱도체험관 등 8실 5개소로 되어 있다. 이경복 외, 「문화환경가꾸기 2003」, 문화환경진단,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 302~304
  - 24) 강진 청자문화제는 다양한 체험행사(청자흙 만들기, 도판찍기, 상감문양넣기, 문양탁본, 즉석숯불소성, 청자 빚기, 청자파편 모자이크, 전통발물레치기 등)과 전시행사(명품청자 판매전, 고려청자 특별전, 한·중 청자 비교전시, 세계유명작가 초대전 등)와 그밖에 다채로운 공연행사와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문화관광부, 「2005년 문화관광축제평가보고서」, p.108.
  - 25) 「국경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 중국,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10여 개 나라의 사람들과 문화를 교류하면서 상생하면서 도시세계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안산시와 안산시민에게 주어진 자연발생적인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대안문화로서 발전가능성을 주고 있다. 강진갑 외, 「문화환경가꾸기 2004」, 문화환경진단,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12.
  - 26) 수도권권의 건축가들로 구성된 철암건축도시작업팀이 중심이 되고, 태백시의 시민단체가 함께 한 「철암탄광촌」 프로젝트는 빌리지움 프로젝트(Villageum program), 미술과 공예프로그램(Art&Craft Education program), 미술체험과노강프로그램, 도시구조리모델링로 진행되었다. 유상오 외, 「문화환경가꾸기 2003」, 문화환경진단,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298~300.
  - 27) 전주전통문화센터는 오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경업당,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화명원, 전통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조리체험실, 놀이마당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그러나 녹음방조가 부족하고 기능공간이 부분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건축물 상호간에 연계성과 통합된 정체성이 없는 것이 흠이다. 따라서 보완책으로 격리공간을 줄이고 온라인의 웹전통문화센터를 설립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한옥마을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최종호 외, 「문화환경가꾸기 2003」, 문화환경진단,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107~108.
  - 28) Franco Bianchini · Michael Parkinson,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Oxford Roa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pp.21~47.
  - 29) Franco Bianchini · Michael Parkinson, 1993, pp.135~154.
  - 30) 여기에는 문화산업육성을 통한 서비스부문, 금융, 보험,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의 발전 전략과 함께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 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효정, 「현대도시들의 새로운 도전, 문화도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p.186.
  - 31) 현재까지 빌바오를 방문하는 주목적이 구겐하임 미술관 관람이었지만 점차 도시전체로 방문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의 파워브랜드가 빌바오라는 도시브랜드 파워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효정, 2006, pp.186~189.
  - 32) Franco Bianchini · Michael Parkinson, 1993, pp.79~89.
  - 33) 학산문화원은 문화예술인들과 구민들을 위한 인천문화의 한 협의체로서 문화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며 인천문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해줌과 동시에 구민들에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특히, 하품학교, 문화체험기행, 청소년역사기행, 거리공연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haksanculture.or.kr>)
  - 34) 학산소극장은 인천의 일한 연극전용공간으로 연극에

- 필요한 최신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haksanculture.or.kr/theater>}
- 35)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2004년 9월 열렸던 축제로, 디지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여 축제 참여자들에게 재미와 참여를 제공하고 '주안' 이 미디어 문화의 핵심지로 국내외 위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미디어아트 전시와 디지털영화제, 라콘서트, 콘테스트, 다양한 거리 축제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 36) 미추홀문화축제는 동아시아의 문류(文流) 핵심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민과 외국 민속팀이 참가한 국제 문화교류축제이다.
- 37) 대한민국로봇대전은 매년 200여팀의 참가와 3만여명의 관람객과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행사이다. {홈페이지, <http://www.robotwar.or.kr>} 특히, 남구는 인천소프트타운과 주안벤처축전지구를 중심으로 특화된 IT s/w를 바탕으로 전통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로봇도시 세우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38) 남구 내 풀뿌리 미술학교를 1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나 종교교육시설 등 민간영역의 공원이 가능한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 39) 현재 남구에는 3개의 소극장이 있으며, 2010년까지 2개의 소극장의 추가로 건립할 계획에 있다.
- 40) 현재(2006년 1월) 남구에는 109개소의 2,984,902m<sup>2</sup>의 공원섬터가 있다(자연공원1, 근린공원9, 어린이공원34, 섬터<sup>62</sup>). {남구홈페이지 일반현황}
- 41) 2004년 12월 문을 연 시민교육연극센터는 소극장과 연습실, 강의실을 갖추고 있어 이를 공연관람과 연습, 교육의 장소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다. 시연센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연극 워크숍 및 연극 아카데미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교육연극 전문 시설이자, 창의력을 키워주는 미술관련 교육까지 수행해내는 통합적 개념의 문화공간으로서 활발히 기능하고 있다.
- 42) 2003년 7월 개관한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는 남구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전문시설과 문화관광부와 인천광역시 의 지원을 더하여,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CAMF는 “CINEMA+ART+MEDIA FOR FUTURE”를 연상시키는 유사발음어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camf.co.kr>}
- 43) 남구는 어린이를 위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마을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수립하였다. 어린이를 위한 1마을1도서관 조성을 통해 사업완료시점(2013년)에 24개소의 도서관이 설립될 계획이다.
- 44)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주민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각종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며, 독립영화와 예술영화의 상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25억원(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2006년 이후 구비 3억 소요)을 들어 조성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영상시대에 알맞은 지역문화 형성과 구의 이미지 브랜드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45) 인하대학교 후문거리 설문조사 결과, 가로경관이 매우 불량하고 대학캠퍼스 타운으로서 문화활동이 전무하며, 경쟁상권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침체·낙후되어 대학 캠퍼스타운에 맞는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대학가 가로경관개선 학술연구용역 연구팀, 조사기간: 2006. 1. 23~1.26}
- 46) 대구광역시 담장허물기 사업은 1996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시정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년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포함한 136개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에서 ‘담장허물기’를 중점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범시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03년 상반기까지 60개소의 주택을 포함한 250개 시설이 참가하여 12,787m의 담을 허물고 이로 인해 69,274개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였다. 이경복 외, 「문화환경가꾸기 2003」, 문화환경재단,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 237~279.
- 47) 남구는 2006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테면, 내향적 국제도시 조성,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학교 유치 등의 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좀 더 문화적인 컨셉에서 국제화, 세계화를 흡수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 48) 인천 남구는 대구시와 함께 지난해 6월 문화관광부가



지역문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한 특수영상 미디어문화센터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문광부가 사업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는 이 문화사업에서 남구의회가 사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인천 영상미디어센터 좌초위기”, 《한국일보》, 2006.01.05.

- 49) “이제는 문화도시”, 《한겨레》, 2006.05.16.  
 50) 지방자치법 제9조는 6개 분야의 5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관련 고유사무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사무는 9조 5항에「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속에 규정되어 있다.

## 참고문헌

강형기, 2001, 향부론 : 문화로 일구는 지방경영, 비봉  
 공무 직원 연수협회, 1989, Event & Convention, 공무 직원 연수협회  
 김효정, 2004, 문화도시 육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효정, 2006, “현대도시들의 새로운 도전, 문화도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p.170~195.  
 라도삼, 2006,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1월호, pp.11~25.  
 문화관광부, 2006, 2005 문화관광축제종합평가보고서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2004 문화환경가꾸기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2004년 문화정책백서  
 박중호, 2005, 유럽음악축제순례기. 한길아트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인천광역시 남구, 2005, 구정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문화환경 진단지표 개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문화환경 가꾸기 2003년 문화진단메뉴얼  
 황동열, 2000, 문화도시 및 문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Edward B. Tylor, 1971, *Primitive Culture: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Language, Art, and Custom*, London: J. Murray

Franco Bianchini · Michael Parkinson, 1993, *Cultural Policy and Urban Regeneration : The West European Experience*, Oxford Roa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rk Goodwin, “The city as commodity: the contested space of urban development,” *Selling Places*, Pergamon Press, pp.145~162.

한국일보, 2006년 1월 5일자, “인천 영상미디어센터 좌초 위기”

한겨레, 2006년 5월 16일, “이제는 문화도시”

문화환경가꾸기 홈페이지: <http://culture.kctpi.re.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ctpi.re.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인천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gu.incheon.kr>

학산문화원 홈페이지: <http://www.haksanculture.or.kr>

학산소극장 홈페이지:

<http://www.haksanculture.or.kr/theater>

대한로봇제전 홈페이지: <http://www.robotwar.or.kr>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홈페이지: <http://www.camf.co.kr>

교신: 변병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Tel: 032-860-7952, E-mail: [byun@inha.ac.kr](mailto:byun@inha.ac.kr)

Correspondence: Byungseol Byun, Inha University 253, YoungHyun-Dong, Nam-Gu, InCheon, Tel: 032-860-7952, E-mail: [byun@inha.ac.kr](mailto:byun@inha.ac.kr)

최초투고일 2006년 10월 13일

최종접수일 2006년 11월 7일

## **Requirement of Cultural City : Focusing on the Cultural Environmental Policy of Nam-gu, Incheon**

Eun Kyoung Kim\* · Byungseol Byun\*\*

**Abstract** : Culture i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modern society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city dwellers and stimulating the urbanization. The conspicuous emergence of cultural cities, which is a new paradigm, can be understood in that context. Global cities are pursuing cultural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in Korea are also pushing ahead with the urbanization which combines cultural elements. Specifically, Nam-gu of Incheon has set an example of successful cultural city for other autonomous regions. The cultural environmental policy of Nam-gu is deemed to have retained the infrastructure, cultural urban landscape and living space, and a plenty of contents. The real significance of cultural city lies in the pursuit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as a culture-friendly city. For that, the direction of cultural environmental city has to be firmly set, and related law and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Above all, it is critical to pursue human-oriented cultural city by showing citizens what roles they have to play, setting the right direction, and improving the partnership.

**Keywords** : keywords: cultural city, cultural environmental policy, identity of city, culture-friendliness of city, spatial aesthetic feature of city.

---

\* Ph.D Candidate, College of Social Sciences, Inha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Social Sciences, Inha University